

# 법인 등록 내년 2월까지 유예

## 조계종, 9일 간담회... "선학원 분원 예비등록 추진"

조계종 사찰법인과 사찰보유법인의 종단 등록이 내년 2월 28일까지 유예된다. 또한 미등록 법인에 대한 제재 조치도 같은 시한까지 면제기로 했다.

조계종 총무부장 정만 스님은 12월 9일 기자 간담회를 열고 개정된 '법인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이하 법인관리법)'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설명했다.

개정된 법인관리법에 따르면 '사찰보유법인' 이사 중 2/3는 종단 승려로 해야 한다'고 명시해 재가 이사 참여를 가능토록 했다. 다만 사찰보유법인 대표자는 종단 승려로 해야 한다. 선학원과 대각회는 이사 전부를 종단 승려로 규정하고 선학원 이사의 1/4를 총무원장 추천을 통해 이뤄지게 한 부분은 종전과 같이 유지했다.

제재 사항이 명확하지 않았던 미등록 법인에 대해서는 명확한 권리 제한을 삽입했다. 이에 따라 미등록법인 임직원, 소속사찰 권리인 및 도제는 △선거권 및 피선거권 △승려복지에 관한 각종 혜택 △각종 중앙종무기관 및 산하기관 종무직 △선원 및 각 교육기관 입학 △교육, 포교 기관 교직 및 임직원 △각종 증명서 발급 △종단 명칭 사용 등을 제한받게 된다.

또한, 미등록 사찰법인, 사찰보유법인의 임직원, 권리인 및 관리인과 고의로 법

을 회피한 관계자에 대해서도 공권징지 5년 이상 제적의 징계에 처한다는 조항도 새롭게 포함됐다.

이와 함께 법인관리법 제정 이전에 설립된 법인에 대해서는 내년 2월28일까지 종단등록을 하도록 경과조치를 마련했으며, 권리제한 및 징계규정의 적용도 내년 2월28일까지 유예하도록 했다.

정만 스님은 "내년 2월 28일까지 기한을 둔 것은 종도로서 의무와 권리를 누리기 위해 법인 등록을 독려하기 위해서"라면서 "법인관리법 개정안은 종무회의를 거쳐 다음 주 중 공포되며 이에 따라 법인에 대한 등록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정만 스님은 선학원과 법보선원 등 법인관리법 현안에 대한 입장도 표명했다. 특히 법보선원에 대해서는 관계 정상화를 위해 노력할 것을 밝혔다.

선학원 분원에 대한 예비등록은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선학원 정상화 특별법'에 의한 종단 위원회 구성을 내년 초까지 마쳐 갈등 해결에 나선다.

정만 스님은 "선학원 분원장 스님들이 종도로서 의무를 다하고자 한다면 예비등록제도를 활용해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성민 기자**

# 100인 대중공사, 현안 해결 '광장' 될까

## 추진위 9일 회의... 출범 내년 1월 28일로 변경

조계종(총무원장 자승)이 내년도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는 100인 대중공사의 명칭과 출범 시기가 최종적으로 결정됐다.

조계종은 12월 9일 100인 대중공사 추진위원회 회의를 열고 사업 명칭, 출범 계획 등을 확정했다.

대중공사의 명칭은 '종단혁신과 백년대계를 위한 사부대중 100인 대중공사'로 결정됐다. 목적은 불교증흥을 위한 백년대계를 수립하고 종도들의 갈등 해소를 위한 공론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있다.

출범 시기도 변경됐다. 원안은 생명평화 1000일 정진에 회향하는 12월 23일 함께 출범식을 개최하려 했으나, 회의를 거쳐 내년 1월 28일 출범식과 첫 회의를 하기로 의견을 조율했다.

100인 위원 구성과 선정 기준도 마련됐다. 사부대중 100인 대중공사 집행위원장은 일감 스님(총무원 기획실장)은 12월 11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대중공사에서 불교 증흥을 위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논의

를 할 수 있어야 하고 10여 차례의 대중공사에 모두 참석할 수 있는 원력이 있어야 하며, 종도들의 신뢰를 받는 인물이어야 한

### 출범과 함께 첫 회의도 진행

### 주제·운영방식·공개여부 논의 100인위 구성 1월 중순 결정

### 그간 토론 결과 반영 '물음표' 실효성 있는 운영·실현이 숙제

다"면서 "100인위 위원 구성은 1월 중순까지 마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100인 위원 인물 선정은 교구부사주연 함희, 전국선원수좌희, 전국 비구니회 등 대표 단체가 있는 경우 해당기관에 적정인

원을 추천할 것을 요청기로 했으며, 종단 종진, 시민사회단체, 재가불자 등은 추진 위원회에서 의견을 수렴해 추천·섭외할 계획이다.

본래 잡혀있던 10개의 주제와 아단법석식 운영 방식은 백지화하기로 했다. 대신 1월 28일 열리는 1차 회의에서 주제와 토론 운영 방식을 결정한다.

이에 대해 일감 스님은 "처음에는 10가지 주제를 선정했지만 100인 위원회 회의의를 통해 주제를 자체적으로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모았다"면서 "전체 회의와 분과 토론 등 진행 방식과 대중공사 공개 여부까지 1차 회의에서 모두 논의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회의 운영 방식과 공개 여부까지 확정되지 않은 100인 대중공사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존재한다. 특히 100인 대중공사의 출범하겠다는 계획이 알려지면서 일각에서는 생명평화 1000일 정진의 출구 전략이라는 비판부터 회의 운영 방식에 대한 한계점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특히 종단쇄신위원회와 결사분부 대중공사에서도 적지 않은 토론과 논의들이 이

뤄졌지만 이것이 총책에 반영된 예는 거의 없는것도 실효성에 의문을 갖게하는 지점이다.

일감 스님은 "총책 반영 문제는 100인 대중공사 속제"라고 인정하며 "100인 대중공사 자체가 종단 변화의 기회다. 종단 사부대중이 모여 주체적인 토론하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 그간 문제를 하신 분들도 대중공사에 적극 참여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사부대중 100인 대중공사 출범식은 내년 1월 28일 오전 10시 조계사 대웅전에서 봉행된다. 공동추진위원장의 개회사와 총무원장 자승스님의 치사, 원로회의 의장 밀운스님의 격려사, 출범 선언, 100인 위원 발원문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이어지는 1차 대중공사는 오후 1시 '종단의 현실과 미래, 100인 위원에게 듣는다'를 주제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공연장에서 열린다. 원로위원 고우 스님의 기조 연설과 주제 선정과 운영방식을 결정하기 위한 100인 위원 토론이 이뤄질 예정이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 천태종, 군승 파송 국방부 제동에 '반박'

## 10일 성명서 발표... "부결 이유 밝혀라" 유감 표명

조계종 군종특별교구 출범 이후 군승 파송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천태종이 군승 파송을 부결을 결정한 국방부에 공식적인 유감 표명과 부결에 대한 해명을 촉구했다.

천태종(총무원장 총공)은 12월 10일 총무부장 월도 스님 명의의 성명을 통해 "감사원이 '공무담임권 침해' 등 위법행위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도 부결로 결의하고, 11월 26일자로 보내 온 공문에서 아무런 해명 없이 한 문장의 짧은 부결 결과만 통보한데 대해 실망을 느낀다"며 "국방부는 부결 이유를 공식적으로 밝혀라"고 말했다.

천태종의 성명에 따르면 천태종은 2013년 군법사 파송을 요청하는 공문을 국방부 장관 앞으로 보낸 바 있으며 '기존 진출한 조계종과 합의해야 한다'는 국방부의 입장을 전혀 받았다.

감사원은 이에 대해 국방부 감사에서 조계종과의 합의를 요구한 조치는 위법행위로 판단했으며 감사원은 법령에 규정 없는 합의를 요구는 위법행위므로, 군종장교운영심사위원회를 열어 자격과 의견을 갖춘 종단의 파송을 허용해야 한다

고 지적한바 있다. 이에 국방부는 11월 19일 군종장교운영심사위원회를 열고 천태종의 군승 파송에 대해 '현시점에서 군내 진입이 제한되므로 부결한다'고 결의했다.

천태종은 "최근 5년간 국방부가 요구하는 군승자원은 매년 13~16명이지만 수급 인력은 50% 정도에 머물러 해마다 미달 사태를 보이고 있다"며 "천태종의 군종 진입 부결은 불교계의 군불교 진흥 여망에 대한 좌절이 아닐 수 없다"고 실망감을 드러냈다.

천태종은 국방부에 대해 군종장교운영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 사유와 감사원에 대해서도 위법이라는 지적이 무시되는 결과가 나온 것이라며 철저한 재검사를 실시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감사원은 대한민국지키기불교도총연합(이하 대불총)가 3월 "병역법상 자격이 있는 조계종 이의 종단 승려의 임용을 허락해야 한다"며 감사원에 낸 '공익사항에 관한 감사청구'로 국방부 감사를 진행했다. 대불총은 12월 5일부로 감사원에 재검사를 청구하는 청구서를 접수했다.

김주일 기자 kimj4217@hyunbul.com

# "불교 내부 문제부터 화쟁으로 풀어야"

## 조계종 화쟁위원회

## 10일 대중공사 열고

## 그간 성과·과제 정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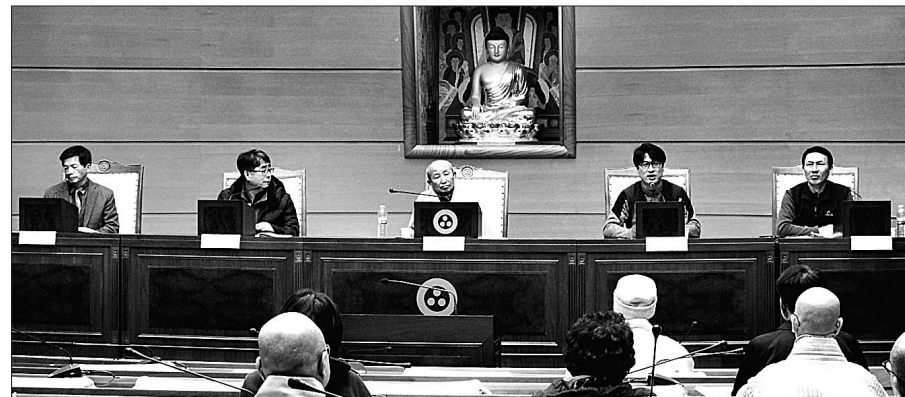
사회적 갈등에 대한 불교적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출범한 조계종 화쟁위원회가 그간의 활동의 성과와 과제를 살펴보는 자리를 마련했다.

조계종 화쟁위원회(위원장 도법)는 12월 10일 한국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화쟁의 길을 묻다'를 주제로 대중공사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정웅기 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 운영위원장은 '화쟁의 길 성과와 한계' 제하의 발제에서 불교 내부 문제부터 화쟁으로 풀어나가지 못했던 점을 한계점으로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 위원장은 "화쟁위원회가 불교 내부 문제조차 화쟁으로 풀어나지 못해 사회적 설득력을 갖지 못했다"면서 "불교 내부 문제부터 화쟁으로 풀어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현장 활동 전문가가 부족한 부분도 문제로 지적했다. 정 위원장은 "다뤄온 의제들이 대부분 미완성으로 남은 것은 상황을 극복할만한 현장 전문가가 부족했기 때



조계종 화쟁위원회는 12월 10일 한국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화쟁의 길을 묻다'를 주제로 대중공사를 개최하고 화쟁위원회의 성과와 과제를 짚었다.

문"이라고 지적하며 "당사자들의 협조를 끌어내고 사회적 공감대를 높일 수 있는 인력 확충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화쟁위원회가 불교계와 한국사회에서 거둔 성과는 높게 평가했다. 특히 불교계의 사회 참여 저변을 확산시킨 것에 대해서는 상찬했다.

정 위원장은 "화쟁을 매개로 종단과 불교시민사회의 연대활동이 진전됐고 이웃 종교계와 교류 연대도 깊어졌다"며 "공감대 형성으로 종교간 대화도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토론자로 나선 김득중 금속노동조합위원장 지부장은 "쌍용차 문제가 아직도 풀리지 않고 있다. 그동안 화쟁위

원회가 해고자 복직, 정리해고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많은 중재 노력을 해주셨다"며 "지난 11월13일 정리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한 대법원의 판결로 쌍용차 문제가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 쌍용차 문제가 사회적 통합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화쟁위원회가 다시 한 번 역할을 해 달라"고 제안했다.

박태만 前 철도노조 수석부위원장은 "철도파업 당시 정치권도, 법으로도 해결되지 않았던 문제를 화쟁위원회가 나서서 대화의 물꼬를 텅던 것처럼 앞으로도 화쟁위원회가 정치와 법이 해결해줄 수 없는 문제들에 대해 적극 나서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신성민 기자

# 조계종 교육원 교육아사리 선발

## 오는 26일까지 접수

조계종 교육원(원장 현운스님)이 승가교육과 관련 연구를 담당할 교육아사리를 위촉한다. 위촉분야는 초기, 대승, 선불교와 근현대 한국불교사, 계율과 불교윤리, 참여불교이며 근현대 한국불교사와 계율과 불교윤리 분야를 우선 선발한다.

신청자격은 비구 중역, 비구니 정덕법계를 수지한 승남 15년 이상의 스님으로 박사과정 수료이상의 학력을 갖췄거나, 석사학위 취득 후 교육 연구경력 2년 이상인 스님, 승가대학원 전문과정 졸업 후 교육 연구경력 3년 이상인 스님, 승가대학원 연구과정을 졸업하고 번역 및 연구 성과가 있는 스님이다.

접수기간은 오는 26일까지이며 종단 홈페이지(www.buddhism.or.kr) 공지사항에서 관련 서류를 다운받은 뒤 교육원으로 제출하면 된다. 2015년 1월 면접 후 위촉할 예정이다.

한편 교육아사리 위촉기간은 3년이며, 위촉기간 동안 소정의 연구비가 지원된다.

또 승가교육기관 교수 임용시 우선 추천되는 등 특전이 주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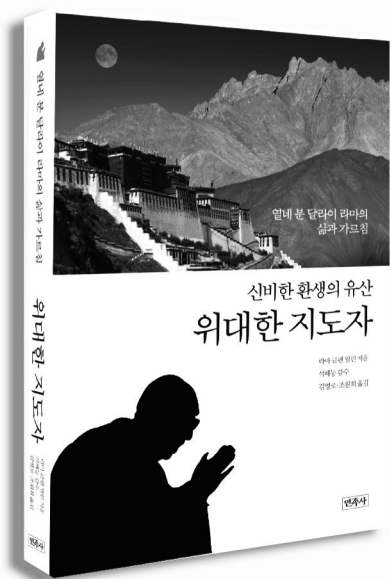
신성민 기자

# 환생 제도로 이어지는 달라이 라마, 그 신비 속에서의 삶과 고뇌를 들여다 본다

## 최초로 1대 달라이 라마로부터 현 14대 달라이 라마까지 역대 달라이 라마들의 삶과 가르침, 고뇌를 담은 책!!!

# 신비한 환생의 유산 위대한 지도자

- 1대 달라이 라마 - 모든 것은 이렇게 시작되었다
- 2대 달라이 라마 - 두 가지 중요한 예언의 실현
- 3대 달라이 라마 - 파드마 썸바와의 예언
- 4대 달라이 라마 - 칭기즈칸의 후에
- 5대 달라이 라마 - 티베트의 정신적·세속적 지도자
- 6대 달라이 라마 - 자유로운 생활과 사랑의 노래
- 7대 달라이 라마 - 하상 칸의 박해를 피해서
- 8대 달라이 라마 - 불안한 시대
- 9대로부터 12대까지 - 달라이 라마들의 요절
- 13대 달라이 라마 - 가장 도전적인 삶
- 14대 달라이 라마 - 인도로의 탈출



리마 글렌 말린 지음  
석혜능 김수  
김영로·조원희 옮김  
신국판 148쪽 | 값 23,500원



일진 스님 지음 | 신국판 변형 1312쪽 | 값 15,000원

# 승만경을 읽는 즐거움

『승만경』은 여래가 될 수 있는 경전, 부처가 될 수 있는 경전이다. 40여 년을 경전 연구와 탁월한 번역가로 전법 활동을 해온 경험으로 저술된 일진 스님의 『승만경』을 읽는 즐거움, 많은 이들이 읽고 부처님이 가신 길을 함께 가기를 고대한다.

- 운문사 화주 명성 스님의 추천사 중에서

